

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체계 강화

전주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조성·공공배달앱·온라인 장보기 등 추진

전주시가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라이브커머스 및 공공배달앱, 온라인 장보기, 동네슈퍼 무인운영시스템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디지털 경제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팔복동 구 청소년자유센터(덕진구 서귀로 107) 건물 5개실과 녹음실, 편집실 등을 갖춘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조성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00명의 소상공인에게 라이브커머스 방법을 교육하고, NS홈쇼핑 등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100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제품을 라이브커머스 또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기로 했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조성 및 소상공인 교육에는 국비 10억 원 등 총 14억2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추가로 30억 원 이상을 더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라이브커머스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 배달앱의 중개·광고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주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한다.

현재 앱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 초부터 시범 운영하게 목표다.

이와 관련, 시는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화폐에 기반한 지역소비 진반의 020 플랫폼 구축 ▲낮은 중개수수료 적용 ▲사용자 편의성, 운영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전통시장 상인 온라인 디지털 판로 지원 ▲시민 체감 정책 서비스 지원 등을 방향으로 삼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단순 외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나 온라인 기획전도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매출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중량시장과 모래내시장에 배송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 근거리 장보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중량시장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인 '잡바오~시장을 담다'를 통해 배송서비스가 운영된다. 당일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신선한 농수산물에 배달된다. 시범 운영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는 3000원 할인 쿠폰도 제공된다. 모래내시장은 온

라인 장보기 플랫폼 '놀장(놀러와요 시장)' 입점을 위해 상인교육 및 제품 선정 과정에 있는 상태로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또한 시는 동네슈퍼 12개를 대상으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도 펼친다. 동네슈퍼도 편의점처럼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입인증장치, 무인계산대, CCTV, 보안장비 등 다양한 스마트 장비와 기술,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동네슈퍼의 무인 운영화를 통해 야간의 매출을 늘리고 점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디지털 경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화되는 유통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환경과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커머스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아낌없는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5년 동안 '고전 100권 함께 읽기' 독서운동 출발

전주시, 출범식 가져... 1기 혼자 읽기반 130명·함께 읽기반 90명 등 총 220명 참가

책이 많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에서 지혜와 영감이 있는 100권의 고전을 5년 동안 함께 읽는 독서운동이 시작됐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독서운동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도하게 된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는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고전이 시민들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5년 동안 함께 읽는 독서운동으로, 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추천을 통해 고전 100권을 선정했다.

고전 읽기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출범할 예정이다. 1기에는 혼자 읽기반 130명, 함께 읽기반 90명 등 총 220명이 참가한다. 혼자 읽기반은 홈페이지 인증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함께 읽기반은 매월 독서토론회도 참여한다.

시는 시민들의 고전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100권 외에 자유 선정도서 50권을 추가로 선정할 상태로, 하반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전 목록도 발굴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지난 2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독서운동 참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침이다. 또 학교와 직장 등에 고전 길잡이를 과견해 누구나 고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독서토론회 진행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반덕진 우석대학교 교수와 함께 '1세기 자기교육 시대, 최선의 방법은 고전 읽기'를 주제로 고전 특강이 진행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는 전주전역에 생계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고전 읽기를 통해 시민들의 통찰력과 사고가 확장되고 삶이 바뀔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곡중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가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전주시서곡중학교 1·2학년 학생 27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Dream Job School'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진로 성취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로봇공학 ▲AI(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IOT(사물인터넷) 디자인 제작 ▲3D프린팅/텐 ▲드론 ▲평화코딩(마이크로비트) ▲스마트화분 ▲IOT(사물인터넷) 스마트하



론 ▲평화코딩(마이크로비트) ▲스마트화분 ▲IOT(사물인터넷) 스마트하

우스 등 총 8개 분야로 구성된 전문가들과 각 직업군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현은 전주시청중학교장은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성숙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다변화되는 시대에 청소년들이 디지털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인문 심화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의 깊은 의미를 알려주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오

는 9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인문 심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인문학의 지혜를 갈망하는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한승훈 원광대학교 교수가 '오래된 이야기의 지혜'를 주제로 세계의 신화를 읽어준다. 특히 오래된 이야기들이 다

룬 인간의 영원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신화를 분석해 보면서 문화와 사회현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관계자는 "도서관 지혜학교를 통해 신중년 세대의 인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생 2막을 도서관에서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스마트도시 계획' 구축 탄력

국토부 최종 승인 완료... '사람을 향한, 시민행복 중심지 스마트 전주' 비전 추진

드론을 통해 각종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보안 사각지대를 살피는 드론 기반 무인 순찰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전주가 스마트도시로 나아간다.

전주시는 최근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전주시 스마트도시 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으며, 국가 공모사업 응모 시 가점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됐다.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전주 스마트도시 계획은 '사람을 향한, 시민행복 중심지 스마트 전주'라는 비전 아래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경제도시' ▲시민안전 최우선 '사람중심 안전도시' ▲첨단 ICT기술로 자연과 융합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시민과 손님이 편안한 '즐거움 문화도시' 등 4대

추진목표로 구성됐다. 시는 ▲구도심 ▲역세권 ▲전주천변 ▲산업단지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등 6개의 공간으로 나눈 뒤 각각의 공간에 적합한 22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로는 ▲로컬 온라인 공연플랫폼 ▲전주형 먹거리 구독 서비스 ▲전주 상징 3D 홀로그램 서비스 ▲드론기반 무인순찰 서비스 ▲스마트 가로등 ▲지능형 교통체계 ▲보행객체 인식 스마트 횡단보도 ▲생활밀착형 헬스케어 ▲에너지 하베스팅 서비스 ▲스마트 주차장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전주형 먹거리 구독서비스는 전주 농산물로 조리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선택한 식단에 맞춰 전국으로 배송하는 유통 경제체계이며, 드론 기반 무인순찰 서비스는 드론 순찰을 통한 위험 감지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 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윤상 기자

향후 시는 전주 스마트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국가예산 사업 및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2년 4월까지 서안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에서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 ▲스마트폴 ▲IoT기반 통합플랫폼 등 3가지 스마트기술을 마을에 적용하고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앞으로 시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계획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편해 지는 스마트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